

포커스 그룹 운영을 통한 제주도 민간요법 사용경험 연구

안덕균 · 이정화 · 백승민 · 김슬기 · 최선미*

<차례>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 2. 연구 문제
- II. 연구방법
 - 1. 연구 설계
 - 2. 질문의 개발
 - 3.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 4. 자료 분석
 - 5. 윤리적 고려
- III. 결과
 -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 2. 범주
- IV. 결론

국문요약

이 연구의 목적은 제주도 지역의 민간요법 특징을 이해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 안덕균(한국본초임상연구센터)

이정화 · 백승민 · 최선미(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본부 침구경락연구그룹)

김슬기(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침구의학교실)

본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 민간요법 활용기반 구축사업과제(K12210)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습니다.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간요법 사용경험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포커스 그룹 운영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4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제 1범주인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리적 민간요법”, 제 2범주인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물리적 민간요법”, 제 3범주인 “일상생활 속 제주도의 건강관리방법”, 제 4범주인 “제주도의 독특한 주술요법”이다.

제주도 주민들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 외에도 육지와 독립된 고유의 자연환경에서 유래된 것들이 다수 있었다. 향후 이러한 고유의 요법들의 잠재적인 효과에 대한 과학적·실증적인 연구에 더해 요법 사용의 기저에 내재된 제주도 주민들의 심리와 풍습에 대한 인류학적인 고찰이 요구된다.

주제어 : 제주도, 민간요법, 사용경험, 포커스그룹, 면담, 자연환경.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민간요법은 전승요법(傳承療法)이라고도 불리며, 경험과 구전(口傳)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치료 지식을 말한다. 이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을 이용하는 것이며, 일정한 지방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전수되어 온 것이다(김태용, 2009: 2쪽). 특히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는 재료는 해당 지역 자연환경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지리적으로 육지와 떨어져 있는 제주도는 우리나라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는 섬이다. 육지와는 전혀 다른 기후와 생태, 자연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해양의 영향을 많

이 받는 해양성 기후가 나타난다. 그리고 예로부터 바람, 돌, 여자가 많아 삼다(三多)의 섬으로 불릴 정도로 바람이 많이 부는 기후적 특징이 있다(이승호, 2010: 243쪽). 또한 제주도의 식물군은 아열대성 식물을 포함하여 난대성 식물이 분포하고 있다(김한주, 2000: 1쪽).

제주도는 태풍의 길목에 위치하고 있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끊이지 않았다. 태풍으로 인한 피해로 생활터전이 초토화(焦土化) 되고, 오래 지속되는 장마는 적기에 농작물을 수확하기 어렵게 하였고, 토양은 보습력이 약해서 가뭄에 취약했다. 혹독한 재해에 시달리며 살아야 했던 제주도 사람들이 초월적 존재를 믿고 의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극심한 자연재해를 신들이 내리는 재앙으로 여겼고, 질병을 신의 노여움 때문에 생긴 '동티(동토動土의 방언)'로 여겼다. 그리고 산천초목은 물론 모든 것에 신령스러운 힘이 깃들어 있다고 경외하게 되었다(윤용택, 2010: 326쪽). 제주도는 육지에 비하여 무속신앙이 강한 데 바로 이러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지역민의 신앙생활에도 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제주 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은 제주지역만의 독특한 민간요법을 형성하는데 일조하였다.

근대 의학이 유입되기 전, 자급자족적 사회 구조를 지녔던 전통사회에서는 병에 걸렸을 때 주변에서 구하기 쉬운 동·식물이나 약재를 이용하여 치료하였다.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겪으며 비교적 효험이 있었던 민간요법은 꾸준히 회자(膾炙)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정립된 것이다. 특히 생활 속에서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는 민간요법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하여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을 파악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제주 지역의 민간요법을 이해하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의 문제는 “제주도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은 어떤 것인가?”라는 연구 질문을 통해 타 지역과는 다른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민간요법에 대해 심층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하여 포커스그룹 면담과 심층면담의 방법을 이용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그룹토의라는 환경에 의해 개개인의 경험이 깊이 있게 확보되지 못할 것을 우려하여 별도로 심층면담을 진행하여 연구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2. 질문의 개발

본 연구자들은 포커스그룹 연구방법에 따라 질문의 원칙을 숙지하고 연구 문제를 명확히 한 후 연구 질문들을 구성하였다.

- 시작질문 : 서로의 경험을 나누기 전에 간단히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성함은 무엇이며, 어디에 살고 계시고,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시는지 간단하게 소개해주세요.
- 도입질문 : 보통 아프실 때 어떻게 하시나요? 본인이 이플 때는 어떻게 하는지 이야기해주세요.

- 전환질문 : 병원(한의원)을 바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병원(한의원) 가기 전후로 사용하는 민간요법이 있다면 상황별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세요.
- 주요질문 : 경증질환, 중증 질환, 기타 질환 등 각각의 경우에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계신가요? 사용하신다면 어떤 민간요법을 사용하시나요? 평상시 건강관리를 위해 본인이 하시거나 가족 내에서 사용하시는 민간요법이 있으신가요? 본인이나 가족 이외에도 질병별로, 또는 이웃에서 알고 계신 민간요법에 대해 이야기 해주세요.
- 마무리질문 : 사용하고 계신 민간요법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이야기 하신 것 중에서 빠진 것이 있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3. 자료수집 과정 및 절차

담당 연구원은 참석자 자격조건을 결정하고, 참석자 선정질문지(Screening Questionnaire)를 작성하였다. 제주도 지역 실사조사팀의 전문 리쿠르터(Recruiter)는 전화연락을 통하여 선정질문지 조건에 부합하는 참여자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기를 원하는 참석자를 모집하였다. 제주도 지역의 실사팀을 통해 참여한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진행방법, 면담 시간 등에 대해서 미리 공지하였다. 면담진행 전에 연구 대상으로 미리 선정된 참여자와 통화하여 면담 장소, 날짜, 시간의 일정을 미리 약속하였다. 면담 당일에는 포커스 그룹 및 심층면담을 위한 일반적인 준비를 하고 연구 참여자들이 면담 장소에 도착하면 연구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포커스그룹 면담과 심층면담의 경우 면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의 경우 (주)메가리서치의 전문

모더레이터(Moderator) 1명이 진행하였고, 나머지 연구자들은 포커스 그룹 면담의 진행 보조 및 현장 녹취 등의 진행 보조 역할을 하였다. 심층면담의 경우는 2명의 참여자를 1명의 연구원이 면담을 진행하였다. 포커스 그룹 면담 자료를 분석한 후, 포커스 그룹 면담 내용을 보완하기 위하여 심층면담을 시행함으로써 자료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과 심층면담은 제주도의 전통찻집에서 이루어졌다. 전통찻집이라는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면담은 시작하기 전 먼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기소개를 함으로써 자신의 경험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 모더레이터(Moderator)는 참여자들의 토의 시간을 골고루 배정하여 어느 한 참여자에만 편중되지 않고 모든 참여자가 참여하도록 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의 경우 제주도 내에서 읍·면 지역 거주자와 시내 거주자의 좌석 배치를 전략적으로 하였다. 예를 들면, 각각 지역별로 좌석배치를 함으로써 토의 진행 시 모더레이터(Moderator)가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질문을 더 유도하거나 심도 깊은 질문을 하기 용이하도록 하였다. 또한, 서로의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면담이 끝날 무렵 연구자는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더 추가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면담이 끝난 후에도 면담을 하며 느낀 점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면담 시간은 총 3시간으로 포커스면담은 2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심층면담은 1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포커스 그룹면담은 2대의 녹음기와 비디오 촬영을 이용하여 토의 내용을 녹음하였고, 심층면담은 1대의 녹음기로 녹음하였으며, 현장노트를 동시에 작성하였다.

4. 자료 분석

녹음된 토의 내용을 참여자의 말 그대로 필사하였다. 필사한 자료는 질적 내용 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자들은 필사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요법의 형태별, 질환별로 카테고리화 하였다. 그런 다음 차이점과 유사점을 비교하면서 카테고리별로 범주들을 도출하였다.

5. 윤리적 고려

연구 수행에 앞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IRB No. I-1106/001-001-01)” 심사를 거쳐 허락을 받았으며 본 연구 참여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평소에 민간요법을 사용해왔던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 포커스 그룹 면담은 한 그룹 당 6~10명으로 제한하는 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Kreuger, 1994; Morgan, 1996), 8명이 참여하였고, 심층면담은 2명씩 5그룹 총 10명이 참여하였다. 연구자는 포커스 그룹 면담과 심층면담에서 확보한 연구 자료는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면담 중간에도 참여가 어려우면 언제든지 연구 참여를 철회할 수 있음을 알려주었다. 이외에도 면담 내용이 녹음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기타 연구관련 공지사항을 모두 설명하여 참여자가 충분히 이해한 후 연구 참여에 대한 자발적인 서면동의를 받았으며, 이들에게는 소정의 사례금을 지급하였다.

Ⅲ. 결과

1.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제주도에 거주하는 18명이었다. 성별은 남자 4명, 여자 14명이었다. 제주도 내 거주 지역별은 5명이 제주시에 거주하였고, 나머지 13명은 제주도 읍·면 지역에 거주하였다. 연령은 30대 1명, 40대 7명, 50대 8명, 60대 2명이었다.

1회의 포커스 그룹 면담 8명과 10명의 심층 면담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를 질적 내용 분석 절차에 따라 분석한 결과, 4가지 범주가 도출되었다.

제 1범주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리적 민간요법”은 타 지역과 다르게 제주도에 많이 사용하는 민간요법을 기술하였고, 제 2범주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물리적 민간요법”은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이 반영된 민간요법 사용에 대해서 보여준다. 제 3범주 “일상생활 속 제주도의 건강관리방법”은 제주도 지역에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민간요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제 4범주 “제주도의 독특한 주술요법”은 제주도에 대대로 계승되어 오는 민간신앙에 기인한 주술적 요법에 대한 경험을 보여준다.

2. 범주

1) 제1범주: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되는 약리적 민간요법

첫 번째 범주인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리적 민간요법’은 육지와는 자연환경이 다른 제주도의 환경적 특성이 반영되어 많이 사용하는 약리적 민간요법이다. 경미한 질환에서부터 시작하여 중증 질환에까지

폭넓게 약리적 민간요법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진술되었다.

① 간경화나 간 기능 장애

참여자들은 비교적 중증 질환에도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한 참여자는 간경화를 앓고 있었는데 제주도에서 만난 한 귀인을 통하여 토끼와 자귀나무¹⁾ 뿌리를 달여서 먹어보라는 권유를 듣고 그대로 먹어보았더니 간경화가 나아졌다고 하였다. 진단을 받았던 병원에 다시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 간이 정말 깨끗해져있었고 음주가 가능할 정도로 정상이 되었다고 하였다.

간이 나빠서 병원에 가니까 간경화라고 해서 약도 먹어보고 했는데 안 나왔습니다. 일본에서 살다가 치료를 위해 한국을 왔는데, 한국에서 한 귀인을 만나서 자귀나무 뿌리 세 끼를 100g을 그늘에서 말려서 토끼에 달여서 먹어라 해서 달여 먹었는데 병이 나아어요.

또한, 참여자들은 간 기능 장애에는 배뇨기능에 효과가 있는 유름 덩굴(또는 줄갱이)를 사용한다고 한다. 제주 방언으로 ‘유름 덩굴’, ‘줄갱이’라고 불리는 으름덩굴²⁾은 간 기능을 좋게 하고 원활한 배뇨기능을 돕는

1) 자귀나무는 한약재명으로는 승歡皮라고 한다. 학명은 *Albizia julibrissin* Durazz로 한방에서는 주로 정신을 안정시키는 약으로써 精神不安, 健忘失眠 등에 사용한다. 아울러 活血작용을 통해 肺癰瘡腫(폐 종양에 해당)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안덕균, 2010).

2) 간염에 으름(木通, *Akebia quinata* Decne)을 사용하는데 으름은 한방임상에서 “임허부인”이라고 하여 이뇨제로 사용한다. 간염 중에서 효력을 보이는 것은 급성간염으로 발열, 복통, 안면에 황달이 있고 복통을 호소하는 증상에 효력을 나타낸다. 본래 이 약은 간울기체(肝鬱氣滯)로 협통, 협장, 복부동통, 혹은 생리통, 고환염 등에 활용하면 간 기능을 회복시키면서 지통작용을 나타낸다. 이런 효능은 으름이 간 기능을 회복시키고 권위 소화, 이뇨작용이 임상적으로 효력이 있다는 증거이다. 다만, 쯔

다고 하였다.

들바나나가 있어요. 제주도 사투리로는 즐갱이라고 하는데 열매모양이 바나나같이 생긴 들에서 나는 거 있어요. 우리 애 아빠가 간이 안 좋은데 그 줄기를 달여 먹고 나온 적 있어요.

남자들 그 오줌을 잘 못 싸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제주도 즐갱이 줄이라고도 하고 유름 줄이라는 게 있어 그것을 삶아서 먹으면 오줌이 잘 나와요.



‘즐갱이’(으름)의 열매와 약용부위로 사용되는 줄기 (조식제, 2012: 411쪽)

降通利(통합을 이롭게 하여 배설의 하강작용을 증진함)의 약물이므로 임신부나 脾胃가 虛寒하여 소변이 잦은 병증에는 사용을 禁해야 한다.

② 위암, 당뇨병

대부분의 참여자가 쇠비름을 위암이나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한 민간요법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주로 쇠비름을 즙으로 만들어 복용하며 엄나무와 배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쇠비름을 엄나무와 함께 김치담궈 먹는다는 내용이 있었다.³⁾

위암에는 쇠비름을 원액으로 만들어서 복용하면 효과가 있고, 굵은 엄나무로 김치를 담가서 그 물을 복용하면 항암효과가 있어서 암을 치료하는데 복용한다고 하였다.

쇠비름이 암에 좋다는데 미나리처럼 빵아서 즙을 짜서 먹어야지 진짜 약인데 요즘에는 다 기계식이라서 집골원에서 하면 다른 약 넣고 물 넣고 해서 옛날처럼 많이 들질 않아요. 옛날처럼 쇠비름 자체를 미나리처럼 즙내서 먹으면 위암에 아주 좋대요.

엄나무가 굵어지면 소금 넣고 김치를 만들어서 그 국물하고 먹으면 항암제가 따로 없습니다.

쇠비름을 위암에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말려서 차로 음용하면 당뇨에 아주 효과적이라고 진술하였다. 당뇨에 효과가 있는 또 다른 약재로는 제주 방언으로 ‘천초’라고 불리는 우뚝가사리가 있었는데, 말리지 않고 볶은 기가 있는 채로 먹으면 당뇨에 좋다고 하였다.⁴⁾

3) 쇠비름(馬齒莧, *Portulaca oleracea* L.)은 본래 약간의 독성이 있어 생것을 사용하면 간에 독성을 일으키므로 전탕하거나 발효를 통해 제독하고 사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임상적 효능이 있어 제주도 지역에서는 통용되는바에 대한 연구를 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쇠비름의 병원 미생물 작용으로는 이질균, 콜레라균, 녹농균, 대장균 등에 현저한 역균작용을 나타낸다. 그리고 동물의 지질대사를 촉진시키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하강시킴이 알려져 있다.

당뇨에는 쇠비름이 좋아요. 아버지 집에 가면 항상 방에 말려두세요. 음식에서 말려야 한다고 방안에 그 약초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아버님이 당뇨 때문에 유난이 몸을 생각 하셔서 쇠비름 해가지고 그거 말려가지고 차같이 마시구요. 효과가 좋대요.

당뇨 심한 것들은 천초가 좋아요. 제주도는 우뭇가사리라고 해요. 우뭇가사리가 햇빛에 널면 바라서 하얘집니다. 지금 약으로 먹는 것은 그대로 햇빛에 바래지 않고 빨간 상태의 것인데, 요즘 많이 드시고 당뇨에 효과도 많이 보고 있어요.

③ 고혈압

참여자들은 톳이 혈압을 내려주는 역할⁵⁾을 한다고 하며, 톳이 제주도에서 일본으로 수출이 될 만큼 많이 채취가 된다고 하였다.

톳을 많이 드세요. 우리 제주도 성산포 쪽에서는 일본으로 많이 수출했거든요. 혈압을 많이 내려서 톳을 많이 먹어요.

④ 관절질환

참여자들은 관절 건강에 좋은 약리적 민간요법이 많이 사용하고 있었

4) 당뇨병의 치료제는 많지만 조절요법이지 확실하게 근치가 되는 것은 없는 정황이다. 그러므로 제주도 지역에서만 우뭇가사리를 사용하는 것은 특이성을 보이는 요법 중 하나이다. 이것은 임상적으로 효력을 더 추시해야 할 것이다.

5) 고혈압에는 톳을 사용하는데 이 톳을 물에 담가 두었다가 염분을 제거하고 사용하는 것이다. 이 약은 본디 서늘한 약성을 가지고 있어 열을 내리면서 혈압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 염분은 신장에 장애를 초래하고 도리어 혈압을 상승시키는데 이 약을 사용하면 혈관확장작용으로 혈압강하효과가 인정되고 변비를 풀어주는데도 확실한 효과가 있다. 이 약이 제주에서만 생산되는 고유한 것은 아니지만 남부해안에 다량 식재하는 것으로 장래성이 인정되는 약재 중 하나이다. 혈압뿐만 아니라 고지혈로 인한 혈관질환 즉 죽상동맥경화증에 유효할 것이다.

는데, 한 참여자는 제주도 사람들에게 관절 관련 질환이 많은 이유로 비가 많이 오는 기후 탓이 크다는 표현을 하였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말뚝⁶⁾을 제곱해서 먹으면 관절에 좋다고 하였으며, 삼동 열매⁷⁾로 술을 담가서 마시는 것도 관절 건강에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허리나 관절 안 좋을 때 말뚝을 제곱해서 먹어요. 제가 허리가 안 좋아서 저도 하나 먹어봤는데 저는 안 받았지만 친정 식구들은 효과 봤어요. 말뚝을 추려서 뼈를 뺀아서 먹었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말뚝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말뚝을 뺀아서 말려서 가루로 내서 시판도 하고 있어요. 말뚝이 관절에 좋대요.

서쪽에는 삼동이라고 까만 열매가 있어요. 겨울에 열매를 맺는데 그해 봄에 설익을 땀 파랗고 중간 썬 되면 빨갛고 다 익으면 까맣게 되거든요. 그거를 따서 술을 담가서 먹으면 관절에 좋다고 해요. 제주도는 다리가 아려요. 비도 많이 오고 몸살도 잦고 그러면 그것만 몇 년 복용해서 좋아진 사람 많아요.

6) 말뚝은 동의보감에서도 “신경통, 관절염, 빈혈에 좋고 특히 귀울림 치료에 탁월하며 허리와 척추에 좋다.”라고 효능이 언급되어 있다(허준, 1613). 그리고 방약합편에도 “홍분하거나 혈압이 높은 사람, 심장, 폐, 대장이 약한 사람에게 좋다.”고 언급되어 있다(황도연, 1885). 약리적으로는 만성퇴행성관절염, 골다공증, 근무력증, 연골손상 등으로 나타난 척추질환 등에 적용되며 효력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난다. 실험적 연구에서도 소염, 진통, 조골세포의 수를 크게 증가시키고 있었다. 관절 건강 외에도 말뚝은 잠이 많은 사람에게 유효하며, 소아의 중이염, 소아야제증에 효력을 나타낸다.

7) 삼동 열매는 ‘상동나무’의 열매로 상동나무는 제주도 해발 400m이하 햇볕이 잘 드는 저지대에 주로 자라는 반상록 관목이다. 열매의 맛이 달아 식용으로 주로 쓰이며 봄철에 열매를 맺는다. 관절염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무릎 관절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도토리나무(제주 방언 동구리 나무)와 돼지족발을 달여서 먹으면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제주에는 동고리나무(도토리나무)라고 있는데 그걸 불려서 돼지 족발이랑 달여서 먹으면 무릎을 고친다고 해요.

⑤ 골절상

참여자들은 뼈에 금이 갔을 때에는 무쇠씻가루를 사용한다고 진술하였다. 뼈에 금이 가거나 부러진 경우에 씻가루⁸⁾를 먹으면 뼈가 단단해지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옛날에 제가 목뼈가 금이 가서 고정기를 찻었는데 씻가루를 먹으면 뼈가 붙던데요. 예전엔 전혀 그걸 안 먹었는데 우리 어머니의 집을 갔다가 목수가 팔을 금이 갔데요. 금이 가서 그거를 사다 줬는데 여기가 너무 단단하게 붙었어요. 제주도에는 외도 가면 씻가루가 있어요. 굴가루요. 햇빛에 비추면 반짝반짝해요 쇠같이. 그거를 주어도 먹으면 뼈가 단단해져요.

⑥ 산후조리, 여성의 생리불순

참여자들은 제주도 지역에서는 육지와 다르게 아이를 출산한 후에 메밀로 만든 미역국을 먹는다고 진술하였다. 메밀미역국을 3~4일 정도 섭취하면 피를 깨끗하게 해준다고 하였다. 그리고 아이에게 먹일 젖이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꼼장어를 죽으로 쭈어서 먹어 왔다고 하였다.⁹⁾

8) 외도에 있는 동굴가루이며 '화산송이 가루'라고 불린다. 여기서 '송이'란 화산 폭발 시 생성된 돌 숲을 일컫는데, 제주 방언으로는 '가벼운 돌'을 의미한다. 한라산 중산간 오름 등에 널리 분포하며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광물질이다.

9) 산후에는 산모가 전신허약증으로 기력을 못 쓰게 마련이다. 이때 꼼장어를 구워 먹는 것은 식이용법이며 건강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특별히 이것으로 죽을 만들어

제주도에서는 애를 낳으면 메밀에 미역국해서 먹거든요. 피를 깨끗하게 하라고, 수제비처럼 해서 한 3~4일 정도 계속 먹게 해서, 나쁜 피를 삭게 해요. 이걸 지금도 해요.

제가 처음 아기 낳을 때 제 아버지는 꼼장어 달달 볶다가 죽 쑤어서 먹이고 그랬어요. 촌에서는 그렇게 해서 애 낳고 젖이 잘 나오도록 해요.

또한 참여자들은 여성이 대부분 앓고 있는 생리통에 익모초를 삶은 물로 엿을 만들어 복용하면 매우 효과적이라고 하였고, 익모초 엿은 불임에도 효과가 있어 아기를 갖기 위해서도 복용한다고 하였다.¹⁰⁾

우리 내 어렸을 때 생리통 있잖아요. 생리 시작 할 때만 되면 계속 아프잖아요. 어머니가 쑥하고 익모초. 엿을 만들어요. 먹기 좋으라고. 그걸 그냥 끓여서 먹으면 너무 쓰잖아요. 그래서 엿을 만들어 엿기름으로 만들어서 단지에 넣어서 항상 복용하게끔 했어요. 생리통에 좋아요.

제주에는 익모초를 삶아가지고 그 물로 밥하고 그 물로 엿을 다룹니다. 옛날에는 결혼해서 애기를 못 낳으면 그거를 먹고 많이 고쳤어요.

복용하는 것은 쌀에서 얻어지는 탄수화물과 꼼장어에서 얻어지는 고단백으로 기력을 회복시키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 10) 여성의 생리불순에 익모초 엿을 사용한다. 이 약은 고전 임상에서도 그 효력이 인정되었고 민간의료나 한방임상에서도 여성의 자궁수축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생리 조절작용을 왕성케 유도시킴이 알려져 있다. 이것을 환약으로 만들어 장기복용하면 복용하기도 편하지만 효력도 매우 우수하다. 예전에는 여성의 필수약으로 인정되어서 내륙지방에서도 인기가 높았다. 단지 쓴 맛을 내므로 기피현상이 있으나 엿으로 만들면 단맛이 나므로 불편함을 알기 어렵다. 익모초를 전탕한 액이나, 알골 추출물, leonurine 성분은 토끼, 고양이, 구니아피그, 흰쥐의 자궁에 대하여 모두 흥분작용을 보이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혈관계통에 작용하여 관상동맥의 혈류량증가작용, 심근 허혈증상에 현저한 치료반응을 보이고 있었다.

⑦ 각종 염증

참여자들은 인동꽃과 피마자 기름, 하수오가 염증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진술하였다. 인동꽃¹¹⁾은 열을 내리는 효과가 있다고 하여 인동꽃을 설탕과 1:1의 비율로 절여서 숙성시킨 후에 효소로 만들어 복용한다고 하였다.

인동꽃의 효력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발효과정을 거쳤다. 이런 발효과정에서 미생물의 활성으로 약효가 몇 배 더 상승됨을 알 수 있었다. 소염작용이 강한 인동꽃을 다시 발효시켜서 효력을 높인 것이다. 인동꽃을 효소로 만드는 거죠. 요즘에는 안 만드는 게 없긴 없어요. 인동꽃을 설탕하고 1:1 비율로 만들어놨다가 차마시듯이 복용하면 해열작용에 좋아요.

피마자 기름¹²⁾이 염증을 낮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또 다른 한 참여자는 남편이 지방간이 있어서 하수오를 달여서 먹으니까 효과가 좋았다고 하였다.

염증이 많다면 피마자 기름 먹어서 회복시켜주세요. 영 안 나오면 병원가면 약을 3일치 지어주면 1첩만 먹어도 몸이 빨리 나아요.

우리 집 아저씨가 지방간이 있어서 계절마다 하수오를 먹습니다. 그것이

11) 인동꽃은 한약명으로 금은화로서 여러 병원미생물의 성장을 억제시키므로 소염, 해열, 살균작용이 현저하여 약효가 인정되는 명약이다. 약하게 전탕한 것은 차로 복용해도 상관이 없다(常敏毅, 1992).

12) 소염작용으로 피마자기름을 사용하는데 외용은 관계가 없으나 내복하면 유독한 알카로이드인 ricinin 성분으로 인하여 설사를 일으키고 장관의 하수현상으로 큰 병증을 유발 할 수 있다. 이 약은 독성이 강하여 사용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오히려 약한 반응을 나타내면서 근치를 유도하는 약물을 사용하는 것이 안정성에서 제일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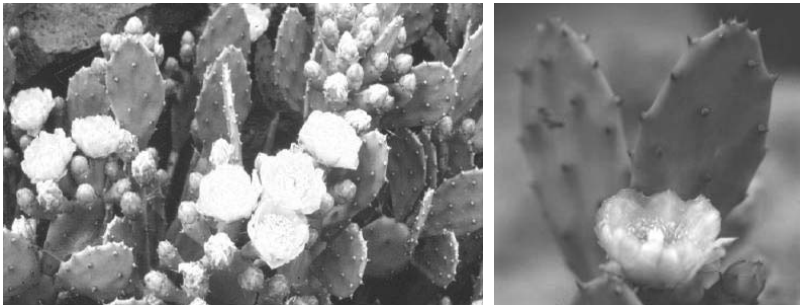
간에 좋고 심신을 보호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⑧ 천식

참여자들은 선인장이 천식과 생리불순에 좋다고 하였는데, 선인장은 주로 제주도 지역에서 자생하기 때문에 가시를 뽑은 선인장을 술에 넣은 후 우려난 물을 마시면 천식에 효과가 좋고 선인장을 즙내어 복용하면 생리불순인 사람에게 좋다고 하였다.¹³⁾

시아버지 살아계실 적에 천식이 심했었어요. 선인장 가시만 뽑아내고 술에다가 넣으면 며칠 있다가 빨갱게 나오거든요. 그거를 마셨더니 아주 좋았어요. 그거는 실제로 해본 거예요.

이는 사람이 생리가 끝난 지 6개월인데 선인장 즙을 한 달 동안 먹었더니 다시 생리를 시작했습니다.



제주 지역 자생 선인장

13) 천식은 감기후유증으로 얻어지는 증상 중 하나이다. 이 경우에 선인장요법은 진해, 거담작용으로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원래 이 약을 생것으로 사용하면 지혈반응을 얻게 되지만 술에 넣으면 알콜에 용해되는 성분이 많아서 더욱 좋은 치료효과를 얻게 된다. 그러므로 이런 질환에 특이하게 적용하는 선인장 요법은 좋은 치료효과를 얻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⑨ 감기

참여자들은 감기가 걸렸을 때 당유자¹⁴⁾에 생강과 파, 배, 대파뿌리, 흑설탕을 넣고 달여서 먹으면 기침과 가래에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 방언으로 ‘두르레기’라고 불리는 하늘타리¹⁵⁾를 똑같은 방식으로 만들어 복용해도 감기 증상에 좋다고 하였다.

감기에는 당유자에 생강, 파, 대파뿌리 앞에 하얀 부분만 넣고, 배와 흑설탕 넣어서 다려서 먹고, 또 들에 나가면 두르레기(하늘타리; 박과 식물) 그것도 넣으면 좋아요. 또 기침 할 때는 도라지도 넣고 해서 달여 먹으면 좋아요.

또한 참여자들은 동백기름에 계란과 꿀을 넣고 섞어서 식전에 복용하면 기침에 좋다고 하였다.

동백기름에 계란과 꿀 섞어서 밥먹기 전에 먹으면 폐가 좋아져요. 제가 했어요. 제가 목이 좀 칼칼하고 그런 사람인데 담배도 이제는 끊었어요. 담배를 끊기 전에는 가래도 많거든요. 그걸 동백기름으로 고쳤어요. 지금도

14) 당유자는 본래 목감기, 소화불량, 전신에 담 걸리는 증상에 적용하는데 제주도 지역에서는 예로부터 감기에 통용으로 처방되었다. 특별하게 제주에는 유자가 자생하고 이 약으로 여러 질환들을 치료하는데 감기에는 해열, 진해, 거담작용으로 효력을 높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밀감이 아닌 당유자야야 효력을 잘 볼 수 있게 된다.

15) 일반감기에 하늘타리를 사용하는 것은 감기에도 가래가 많고 기침이 오래도록 그치지 않는 증상에 적용된다. 한방임상에서는 당뇨병치료제로 사용하는데 감기에 사용하는 것은 제주도 지역의 독특한 용법이다. 제주에는 하늘타리보다는 노랑하늘타리의 뿌리와 과실을 사용하는데 이 지역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한방임상에서는 하늘타리 뿌리가 당뇨에 적용되지만 해소에 발열이 있고 가래가 많으면서 기침을 연발하는 증상에 행인, 상백피, 패모를 배합하여 사용하고, 허열(虛熱)로 해소하는 증상에 인삼과 배합하며, 소아가 만성해소로 기침을 할 때에 가래에서 피가 섞이는 증상에 지혈, 진해작용을 취하게 된다.

만약에 감기가 걸리면 기침이 나오잖아요. 감기가 걸리면 동백기름을 먹으면 내려가요.

2) 제2범주: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물리적 민간요법

두 번째 범주인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물리적 민간요법’은 제주도의 특수한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생긴 민간요법이다. 특히 바다에 둘러싸인 섬 지역의 특성으로 인하여 바닷물이나 바다의 모래를 이용한 민간요법이 많았다.

① 체(滯)내림을 통한 소화 유도

참여자들은 일명 ‘체내림’이라 하여 손가락을 목 안에 넣어 위나 식도에 체해서 걸려있다고 여기는 음식물을 꺼내는 치료법이 있다고 하였다. 환자의 목구멍을 자극하여 구토를 유도하는 방식이거나 위 등 소화기관이 위치한 복부를 주무르거나 눌러서 구토나 배변을 유도하는 방식이 주를 이루었다.¹⁶⁾

제주도는 ‘체’라는게 있어요. 입으로 올려서 빼내는 것이 아주 성행하고 있어요.

‘체’내린다고는 써 있는데 체 낸다고 표현 하거든요. 내리는 것도 있지만 주로 위로 빼내는 것도 있어요. 지금 제주도서 많이들 하거든요. 좋다고 하

16) 체내림에서 滯는 위장장애를 말하며 특히 만성위염으로 복통, 속쓰림, 소화불량, 복창, 트림, 대변이 불규칙하고 두통을 수반하는 증상이다. 이 때 등을 쳐서 염증부위를 退吐시키는 요법인데 이 요법은 제주에만 있었던 요법이 아니라 육지 지역에서도 흥행했던 시절이 있었다. 제주 밖의 지역에서는 많이 소멸된 요법이지만 제주도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는 민간의료행위이다. 치료자는 효력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때로는 조직에 손상을 초래하여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

는 사람들도 있어요.

체내림을 받아 봤는데 하면은‘체’걸렸다고 하면서 손으로 하면 진짜 나와요. 덩어리 같은 것이 나오고, 한 7개 정도. 오래 전에 것도 나오구요.

근데 더 재미있는 것은 어느 병원 원장님도 ‘체’내리는 곳에 다니세요. 병원 의사선생님들이 도저히 못하는 건 ‘체’로 고친다고 이야기하세요.

심지어 본인이 직접 가족들에게 ‘체’ 내리는 행위를 시술하여 소화를 유도하는 참여자도 있을 정도로 제주도에서는 흔한 민간요법이다.

어른이 음식 먹다 체했으면 배를 만져보면 몽클한 게 만져집니다. 우리 식구들은 제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렇게 만지면 아까처럼 밑으로 유도해서 항문 쪽으로 내리던가 위로 해가지고 입으로 나오던가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몽클한 것을 누르는 이유가 조금 분산시키려는 거지요.

예를 들어 몽클한 게 있다하면 분산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막 주물러가지고 덩어리를 파괴하죠, 그런 후에는 아까 식으로 위로 해서 입으로 나오게 하고 손을 따가지고 사혈해 주면 그게 해소가 됩니다.

참여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체했을 때도 일명 ‘체내림’ 시술 받는 것을 선호하고 있었으며 심지어는 병원의 진료와 비교하여 보다 나은 효과를 본다고 증언하였다.

갓난 아기들은 기어 다니면서 라면 꺾데기 등, 먹은 것이 나오기도 하고요, 풀이 나오기도 하고 전 날 먹지 말아야 되요. 아침에 빈 속에 가면 이렇게 만져지나봐요. 슬슬 올리니까 진짜 나와요. 아침에 변 볼 때 같이

어린이들이 보통 चे하면 병원에 가잖아요. 병원에서는 체한건지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체내리는데 할머니한테 가서 내려요. 또 저저 책을 사서 봤습니다. 실제로 해보니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우리 가족들을 제가 다 하고 있는데, 사실 민간요법이 오히려 효과가 있을 때가 있어요.

② 침을 통한 소아 경기(驚氣)의 해소

참여자들은 아이들이 경기를 하거나, 고열을 앓는 경우 또는 성질이 급해지고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에는 침술로서 증상을 해결하고 있었다. 체내림 시술과 마찬가지로 행위의 주체자는 한의사가 아닌 나이가 지긋한 비전문가였으며 특히 할머니인 경우가 많았다. 진술에 의하면 ‘한라산의 기(氣)’가 강해서 아이에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믿는 무속신앙적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저도 어릴 때 침 맞고 낫고요. 저희 아들도 딸도 14살까지 침으로 해서 나왔어요. 처음에는 누가 와서 만지기만 해도 막 울었어요. 15일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갔었거든요. 15일 맞을 때가 되면 아이가 알아요. 애가 맞을 때 되면 성격이 막 급해져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지 아까처럼 막 높아야 되는데 칭얼대고. 그러다가 점점 나이가 들수록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그렇게요. 그런데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꾸준히 갔어요. 초등학교 3~4학년까지 하고 난 후에 그 할머니가 없어지니깐 그 다음에 한 방에 가서 그런 식으로 하니깐 괜찮아지더라고요. 초등학교 졸업 쯤 되니깐 안 다니기 시작했죠.

성격이 차분해져요. 저희가 막내를 침으로 키워봤는데 갔다 오면 차분해져요.

제주도에만 유독 있는 게, 한라산 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

더러구요. 할머니들이 한라산 기 때문에 그런거라구요.

열이 많다가 갔다 오면 진짜 마음이 진정이 되요. 종종 우리 아이들을 볼 때면 ‘침 맞을 때 됐구나’ 그렇게 이야기 할 때가 있어요.

③ 골격계 질환

참여자들은 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서 모래찜질을 한다고 하였다.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검은 모래 해변은 일본에서도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다고 하였다. 뼈가 아픈 경우에 검은 모래로 찜질을 하면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¹⁷⁾ 또한 검은 모래에 소금과 고추 등을 함께 찌서 보자기에 감싼 후 찜질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하였다.

제주도는 삼양 해수욕장이 검은 모래예요. 여름 되면 거기서 와서 찜질을 하거든요. 검은 모래 찜질. 뼈 이렇게 아픈 사람들. 그렇게 많이 나아진다고 해서 일본에서도 오고 그러거든요.

한 달 보름동안 정형외과에 입원했는데 검은 모래와 빨간 고추를 검은 헝겊으로 싸서 찜동에 찌서 찜질했더니 신통하게 나왔어요. 소금도 검은 보자기 같이 넣어서 하기도 해요.

④ 피부질환

참여자들은 피부질환 중의 하나인 건선증(乾癬症)의 경우에는 해수욕과 일광욕으로 치료한다고 진술하였다. 한 참여자는 건선증을 앓고 있는

17) 뜨거운 모래찜은 근, 골격계 질환 치료에 근육을 이완시키면서 염증을 풀어 준다. 일반적으로 도시인들이 숯가마찜을 즐겨 찾는데 이런 요법은 도리어 전신에 진기를 손상시킬 수 있어서 권장하지 않으며 제주에서 많이 애용하는 모래찜질이 더 유효할 것이다.

아버지가 여름에 바닷가에서 해수욕과 일광욕을 하면서 건선증을 관리하는데, 피부의 붉은 기운이 완화된다고 하였다.¹⁸⁾

저희 아버지는 건선증이신데, 평생 못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여름 되면 일부러 바닷가에 가서서 짧은 팔 입고 수영하시고 하루 종일 햇빛을 쬐고 오세요. 그렇게 일부러 노출시키고 나면 한 몇 일 동안은 그게 말라가지고 흉하게 붉은 부분이 없어져요. 그렇게 항상 하시니까 그 빨간 기운이 많이 없어져요. 태워가지고요. 여름이 아닐 때는 병원에 가서서 누워가지고 뭘 찌냐고 하시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일부러 바닷물의 짠 물에 묻혀가지고 태우시면 좋더라고요.

또한 참여자들은 제주도 환경을 이용해서 피부병이나 땀띠가 났을 경우에는 썰물 때 생기는 바닷가 속에서 용출되는 찬물로 목욕을 하면 병이 사라진다고 하였다.

아무래도 제주도의 환경 자체가 다르다보니 환경을 이용해서 건강을 많이 지키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지하수가 많이 나거든요. 바닷가 속에 바닷가 내에 물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썰물이나 밀물 때 내려갔다가 나중에 물이 나오거든요. 보통 물이 다 있을 때는 밀물 때는 표시가 안 나는데 딱 물이 빠지면 거기에서 찬 물이 나와요. 여름엔 다 거기 그쪽으로 가죠. 완전히 얼음이거든요. 제주도는 거의 대부분이 이용해요. 그걸로 목욕하면 병 같은 것도 없다고 하고 땀띠난 사람도 다 없어지고 그래요. 요즘 그게 많이 없어지긴 했어요.

그리고 참여자들 대부분은 말기름의 기름기가 수분을 주어 열을 내리

18) 피부건선에 일광욕과 모래찜을 한다고 했는데 모래는 광물성분과 살균력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피부진균억제작용으로 효력을 얻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해수에는 살균성분이 농축되어 있어 건선을 치료하는 것이다.

게 해주기 때문에 아토피로 피부에 열이 오르거나 화상을 입었을 때 말기름을 바르면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¹⁹⁾

말기름은요. 기름기가 있어서 수분 촉촉하게 해서 덜 하는 거 같아요. 화상에 좋아요. 열도 식혀주고 촉촉한 그제 있어서 조금 있으면 스며들거든요. 아이들 화상 입을 때는 말기름 같은 것도 발라주면 열이 식어가지고 낫는 거 같아요.

딸이 또 아토피예요. 아이 낳고 7개월 만에 가랑이가 또 아토피였어요. 여름만 되면 독이 피고 열이 오르고 아토피가 시작해요. 막 가려우면 물로 씻어주고 차가운데 눕히고 열이 피면 말기름을 썼어요.

⑤ 다리 부종과 염좌(捻挫), 골절 치료

참여자들은 다리가 붓거나 발을 빼었을 때 치자를 밀가루에 반죽하여 떡과 같은 형태로 만들어 환부에 붙이면 효과가 좋다고 하였다. 한 참여자는 다리가 부러진 경우에 치자를 생강과 막걸리, 밀가루를 넣고 반죽하여 다친 부위에 붙였더니 나왔다고 하였다.

옛날에 보면 다리나 발 같은데 빠거나 다리가 붓고 하면 치자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아픈 부분에다가 붙이고 그랬어요. 치자가 그런 역할도 많이 해요.

우리 언니가 다리가 부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 때 치자와 생강, 밀가루에 막걸리를 조금 넣어서 반죽해서 붙이니까 어느 순간 나왔어요. 지금도 우리

19) 피부염에 말기름이 사용되는데 이 약은 피부염이나 건선 등에 살균작용이나 피부 유효성을 제고시켜서 효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일시적인 효과가 아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하면 도리어 치료반응이 지나쳐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다.

가 빠졌을 때 생강하고 치자하고 밀가루하고 막걸리 좀 넣어서 반죽해서 붙이면 까맣게 피독이 올라와요. 그러고서 증상이 좋아지더라고요.

용천수(湧泉水)를 마시고 생긴 부종에는 폭포의 장력을 이용하여 혈 자리를 마사지하여 혈을 고르게 하여 부종을 안정시켰다.

풍토병도 있을 수 있고 그전에는, 지금은 수돗물을 먹어서 있는데 그전에는 바다 용수천을 먹었잖아요 그래서 몸 붓는 분들이 많았었죠. 민간요법으로 마사지도 하는데, 옛날에는 마사지가 없었어요. 그러니깐 산에서 폭포가 내려와요. 그것을 맞으면 마사지 하는 식으로 아주 혈이 고라져요. 혈이 골라지면 사람이 아주 편해지죠.

⑥ 타박상과 부기(浮氣), 벌레 물린 것

참여자들은 넘어져서 다친 타박상이나 그로 인한 부기를 완화하는데 피마자기름이 효과가 있었다고 했다.²⁰⁾ 한 참여자는 얼굴이 자주 붓는 체질인데 그 때마다 피마자기름을 발라서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하였다.

제가 보름 쯤 전에 죽을 뻔 했어요. 화장실에서 넘어져가지고 거기서 한 30분 의식을 잃었었는데 스스로 깨보니 코와 입 주변 붓고 이가 흔들리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응급실에 가니깐 다 검사해도 이상은 없대요. 그래서 오자마자 피마자기름이 있어서 피마자기름을 접시에 부어서 면봉으로 우선 바르고 피자마 기름은 조금만 먹어도 설사 나서 조금만 입에 넣어서 살살 내려가게 하고 면봉으로 콧속에 바르고 이렇게 해서 한 칠일 만에 다 나왔거든요.

20) 전술했듯이 피마자는 독성이 있으므로 외용으로는 효력이 있을 수 있으나, 내복은 금물이다.

봄이 되면 이상하게 얼굴이 잘 부어요. 소나무라든가 꽃가루 그런 거 때 문인지 밖에 외출하는 게 겁이 나서 항상 마스크를 써요. 아침에 피마자 기름을 눈에 바르고 저녁에 잘 때도 바르고 자고 코에도 발라요. 그게 효과 있으니까요.

또한 피마자기름이 해독작용이 있어 벌레 물렸을 때 발라도 좋다고 하였다.

피마자기름이 벌레 물렸을 때도 좋아요. 해독을 하는 거죠.

⑦ 창상(創傷)과 자상(刺傷), 습진

참여자들은 칼에 베인 곳이나 상처가 있는 부위, 습진이 생긴 곳에 벌똥을 붙이면 효과가 좋다고 하였는데, 벌똥은 더운 여름에 담요(개포)를 덮어놓은 벌집에서 추출할 수 있다고 하였다.

우리가 양봉을 하는데, 벌집에다가 우리 이불포 같은 담요를 덮어놔요. 그런 후 담요를 걷으면 진득진득하게 생기는게 있는데 그것이 벌똥이에요. 그것을 긁어가지고 촛불에 달궈서 칼에 베인 곳이나 상처난 부위, 습진 있는 곳에 그것을 붙이면 구정물이 나오고 좋아집니다. 벌똥은 꼭 추천하고 싶어요.

⑧ 귀에 생긴 질환

참여자들은 예전에는 제주도 올레길에 석창포가 많이 자라서 귀에 질환이 생겼을 경우에는 항아리에 석창포를 넣고 삶아 그 때 나오는 김을 귀에 썬어주면 귀가 좋아진다고 하였다.²¹⁾

21) 중이염에 석창포를 사용하는 것은 이 약이 원래 머리 윗부분치료제로 중이염에도

우리는 석창포라고 하는데 예전에도 보면 촌에 올레길에 보면 있었는데 이제 없어요. 그것을 삶아서 이제 항아리에 넣어서 형끓 덮어서 귀에 쏘아 주면 귀가 좋아져요. 저도 그런 방법으로 나왔어요.

⑨ 근육통, 어깨 결림증

참여자들은 근육통에는 찜질약으로 목회솜 및 엄나무 가시를 통한 치료를 한다고 하였다. 근육통에는 목회솜을 항아리에 넣고 불에 붙인 후 몸에 접촉하면 나쁜 피독이 몰려서 그 때 사혈을 해주면 혈액순환이 되면서 근육통이 낫는다고 하였다.²²⁾

의술적으로 보면 불법인 방법인데. 저희도 육지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항아리 단지에다가 목회솜을 넣고 딱 불을 붙여요. 한 세 번 정도요. 그리고 아픈 곳을 대면 나쁜 피만 짝 올라와요. 부항처럼요. 그런 다음에 이제 침을 놓아요.

또한, 어깨가 결릴 때에는 엄나무 가시를 잘라 삶아서 지압을 해주면 어깨 결림이 낫는다고 하였다.

소염, 배농작용을 얻게 된다. 그리고 뇌 대사를 활성화시켜 뇌혈관의 순환촉진작용으로 머리를 맑게 하고 산소공급을 원활하게 유도한다. 이 약은 약리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진통작용뿐 아니라 임상적 효력도 충분한 민간약이다. 오래 장복해도 안전성이 있고 성장속도도 신속하여 효용성도 나타나는 향약(鄉藥)이라고 할 수 있다.

22) 인체 적용 방법은 다르지만 목회솜, 엄나무를 전탕하여 복용하는 방법이 시중에서는 해동피라고 하여 사용된다. 그러나 정확한 명칭은 해동피가 아니고 “자추수치”이다. 이 약은 국내에서 널리 애용하는 약으로 옷담이나 토종담요리에 필수품이다(王筠默, 2006). 이 약은 국내에서 수십 년간 해동피대용으로 사용하여 일반 신경통이나 척추 질환에 응용하여 효력을 보고 있어 진통작용, 근육이완작용을 보이고 있다. 이 약은 약리적인 효과가 확인되어 진통작용뿐 아니라 임상적 효력도 충분한 민간약이다. 오래 장복해도 안전성이 있고 효과도 신속하여 효용성이 있는 향약이라고 할 수 있다.

엄나무를 잘라서 삶아가지고 어깨나 저린 곳에 놓아요. 그게 가시가 있어서 큰 가시들은 다듬고 지압하듯이 눌러주고 하면 좋아요.

3) 제3범주: 일상생활 속 제주도의 건강관리방법

세 번째 범주인 ‘일상생활 속 제주도의 건강방법’은 제주도 지역에서 일상생활에서도 질병의 예방이나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 민간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① 피로 회복

참여자들은 일상생활에서 쌓인 피로를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검은 모래 해변의 검은 모래를 통해 푼다고 하였다. 검은 모래를 이용한 모래찜질을 한 후에는 몸이 가벼워지고 근육통이 완화되며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였다.

제주도 삼양모래는 검은 모래인데 모래찜질을 매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래찜을 하면 몸이 가벼워지고 어깨나 근육통에 좋아요.

② 모발과 피부 건강

참여자들은 미용을 위해서도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구체적으로 모발을 검고 부드럽게 관리하기 위해서 머리를 감을 때 동백나무 열매로 짠 동백기름을 바르는데 예로부터 제주도 지방에 전해 내려오던 민간요법이라고 하였다.²³⁾

23) 동백나무 열매의 기름은 유효성이 높고 살균작용도 있어서 고래로 인기가 있는 머릿기름이요, 모발치료약이다. 그리고 살균작용도 나타나는 유망 약물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육지에서는 상대적으로 구하기가 쉽지 않아 활용도가 낮은 편이다.

동백열매로 짠 기름을 몇 방울을 물에 타 넣고 머리 감으면 진짜 자연히 머리도 안 희어지고 좋아요. 옛날에는 어른들이 동백기름을 그냥 발랐어요. 그러면 머리도 안 희어지고 좀 그렇게 하는 데 저 경우에는 물에 떨어뜨려서 헹구어서 감으면 부드러워지니까 린스역할도 합니다.

또 한 참여자는 피부 미용을 위해서 말기름에 오렌지를 섞어서 세수하고 난 후에 바른다고 하였고, 직접해보지는 않았지만 얼굴에 난 검버섯에도 말기름을 바르면 좋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였다.

말기름은 화상에도 좋고,²⁴⁾ 미용에도 좋다고 해요. 또 얼굴에 검버섯에 바르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오렌지를 같이 넣어 가지고 말기름에 섞어가지고 세수하고 발랐다가 닦아내고 씻으면 좋아요.

③ 일상적인 건강관리

참여자들은 일상적인 건강관리를 위해서 된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 특히하게도 된장을 끓여서 먹지 않고 생(生)으로 냉국을 만들어서 효소처럼 복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한 참여자는 식사 때마다 된장을 마늘, 양파와 함께 섭취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 혈압을 관리하고 있다고 하였다.

된장을 끓이지 않고 여름에는 냉국으로 해서 먹어요. 말 그대로 냉국 끓인 걸로 해도 되지만, 된장을 끓이지 않고 먹어요. 그러니까 효소를 바로 먹을 수 있는 거죠.

24) 화상에 말기름을 사용하는 것은 말기름의 살균작용, 소염작용을 취해 진물이 흐르는 것을 없애고 염증을 치료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집에서 삼시세끼 된장에 양파를 놓아요. 거기에 마늘도 넣고 해서 먹습니다. 또 된장을 메어놓고 냉국이나 국도 끓여먹어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 다 건강해요. 거기에 양파도 먹으면 혈압도 좋아져요.

4) 제4범주: 제주도의 독특한 주술요법

네 번째 범주인 ‘제주도의 독특한 주술요법’은 몸이 아플 때 약물적, 비약물적 요법 이외에도 제주도의 민간신앙(民間信仰)에 근거한 주술적인 요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① 아플 때 냅드리기, 영염(靈念)

참여자들이 아플 때 하는 행동에 대한 표현에서 흥미로운 점들이 있었다. 아플 때 병원에 가는 것보다 먼저 동네의 삼신할머니를 찾아 냅드리기와 영염(靈念)을 의뢰하는 특유의 의례행위가 있었다. 어른들도 냅드리기와 영염을 하고 있지만 특히 어린 아이의 병에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였다.

나도 아이들이 아프고 그러면 병원 가는 대신에 냅 드려요. 제주도는 아이들이 놀랐다고 하면 삼신 할망한테 냅을 드려주는 그런 미신이 있어요. 지금도 아이들 놀랐다고 하면 냅 드리러 가요. 우리 어른도 마찬가지로요. 옷이라도 가지고 가면 애가 여기 낫다 안 낫다. 그분이 다 알아요. 냅을 드릴려는 사람의 옷을 가지고 가면 이 사람은 정말 뭐 때문에 뭐가 어떻게 하면서 풀어주더라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오라고 하면 또 가야해요. 그렇게 3번 가면 그 사람이 정말 멀쩡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주도에서는 냅드리기 하는 사람을 삼신할머니라고 불렀으며, 도처에 냅드리기를 하는 사람이 많다고 하였다. 냅드리기는 아픈 사람의 아래옷이

아닌 옷을 만지면서, 옷을 꿰다 개는 행위를 함으로써 낫게 하는 것이라 하였다.

제주도는 특히 아이들이 놀래거나 밤에 잠을 못 자고 그러면 그 할머니 녀트 드려준다고 해요. 그걸 하는 분들도 많고요.

지금 서귀포 쪽에 가면 녀드리는 사람이 있는데 줄을 하루에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침 몇시부터 해서 저녁 5시까지요. 그 사람은 굿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옷을 가져가서 옷을 만져요. 그게 다예요. 아래옷 말고 위에 옷을 만져요. 애가 못가잖아요. 우리가 아프면 우리가 직접 가면 되는데 같이 못가는 경우에는요. 그 사람이 봐서 녀을 들여야겠다 하는 옷은 만지고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안 해도 괜찮다 해요. 방법은 옷을 꿰다가 개는 것이 다예요. 예쁘게 개는 것이 끝이라고 볼 수 있죠.

또한, 참여자들은 녀드리는 것을 제주도가 섬이라는 환경적인 것에 기인한 미신 혹은 무속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병원치료를 통하여 질병이 치료되는 만큼 녀드리기를 통해서도 병이 나을 것이라는 신념도 가지고 있었다.

지금 우리 제주도는 애기 놀랬을 때 녀드리고 있어요. 또 어른도 아프면 옷을 가져다주면 병원에 갈 사람은 병원가라고하면서 자기는 안 봐줘도 된다고 옷을 안 봐줘요.

산을 잘못 써서 아팠다 해서 굿도 하고 녀도 하고 그러면 환자가 좀 달라지긴 해요. 미신도 전혀 없다고 하면 안돼요. 섬 지역이라서 그런 게 더 있는 거 같아요. 항상 보면 그냥 누가 아팠다 하면 병원도 병원이지만 그런데 가서 녀드리고 들어보고 굿하고 해요.

② 눈 다래끼 치료방법

참여자들은 눈 다래끼가 날 때 손톱에 십(十)자 모양을 바늘로 그리면 낫는다고 하였고, 눈 다래끼가 낫을 때 바다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고 하였다. 특이한 주술적 행위로는 여성의 경우 남의 집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고 남의 집 담벼락에 소변을 칠해야만 눈 다래끼가 낫는다고도 하였다.

내가 어릴 때는 다래끼가 잘났는데 손톱에 십자가 바늘로 그런 걸 그려 놓고 그랬어요.

다래끼 날 때 물때에 따라 바닷고기를 먹지 말아야 안 난대요. 비린 것을 먹지 말라고 하기도 했어요.

다래끼 나는 사람들이 제주도 말로 바다 물때마다 나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는 그럴 때 자기 화장실 말고 남의 집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보고 남의 집 담벼락에 이렇게 칠하면 낫는다고 해요.

③ 정신적 질환 및 동티(動土)

참여자들은 집에 화장실을 고치거나, 새로 집을 이사 가거나 혹은 수리할 때 잘못하게 되면 갑자기 아플 수 있는데 그것을 ‘동티’가 났다고 표현했다. 동티가 나면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고, 굿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다.

병원에서 고칠 병이 아니니까. 그러면 이렇게 애가 갑자기 집에 이사 갔는데 가자마자 며칠 있더니만 애가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다가 갑자기 아파버리던가 잠자는데 깨던가 하잖아요. 어른도 갑자기 건강했던 사람이 동티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냥 아픈 정도가 아니라 왜 저러지 하는 정도로 큰 의미예요. 많이 어떻게 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또 빨리 안하면 여전히 안 좋게 하는 우리가 무서워하는. 동티가 쉽게 낫는 게 아니고 잘못되면 아주 크게 잘못될 것 같은 거예요. 그게 워낙 산주위에 있죠.

말하자면 제주도는 한라산이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을 할 때는 한라산도 좀 강한 것 같아요. ‘날 좀 보고해야한다.’안하면 동티가 난다 그거예요. 뭐 이사하고 집 가고 뭐 큰일 할 때, 화장실 고칠 때, 집도 수리 크게 할 때, 방을 크게 한다던지 할 때 동티가 걸리기도 해요.

동티나면 무속인 찾아가서 굿도 하고, 굿은 돈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보살집 먼저 찾아가요. 가서 굿해라 하면 하기도하고.

이 병이 다른 쪽으로 해서 아픈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집에 화장실을 고쳤다 하면 동티났다 뭐다 그런 거 있거든요. 제주도만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동티났다는 것은 사실상 그래서 병에 걸린 게 아닌데도 굿하고 그래요. 산을 잘못 써서 아팠다고 해서 굿도 하고 뉘도 하고요. 그러면 환자가 좀 달라지긴 해요.

옛날에 보면 집에 나무 같은 거 큰 나무 감나무 같은 거 잘라버려도 그걸 동티라고 하고, 화장실을 고치잖아요. 날을 봐서 고쳐도 ‘화장실 고친 게 잘못 되서 또 그걸 건드려서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IV. 결론

본 연구는 제주도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민간요법을 파악하기 위해 심층적으로 포커스그룹 면담을 실시한 후 면담자료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는 제주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민간요법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분석 결과 제주도 지역의 민간요법은 4가지 범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각각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리적 민간요법',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물리적 민간요법', '일상생활 속 제주도의 건강관리방법', '제주도의 독특한 주술요법'과 같다. 이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범주인 '제주도에서 많이 사용하는 약리적 민간요법'에서는 간경화나 간기능 장애, 위암, 당뇨병, 고혈압, 관절염, 골절상, 산후조리, 여성의 생리불순, 염증 및 발열, 천식, 감기 등에 대응하여 제주지역의 특산물이 민간 치료제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대부분의 요법은 육지 지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제주도가 주(主) 산지인 동·식물을 사용한 요법의 경우 제주도 특이적인 요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관절염에 말뚝을 사용하는 것, 천식에 선인장을 사용하는 것, 감기에 당유자를 사용하는 것 등이 그 예이다. 말은 고려시대부터 제주도 지역에서만 방목되었기 때문에 제주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동물이며, 선인장과 당유자는 주로 제주도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특정 약재를 의학 또는 한의학계에 일반적으로 알려진 효능·효과와는 다른 적응증에 사용한 경우가 있었다. 감기에 하늘타리를 사용하는 것이 그 예인데, 한방임상에서 하늘타리는 주로 당뇨병치료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 지역에서는 노랑하늘타리의 뿌리와 과실을 감기 치료에 사용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며, 당뇨병에 우뚝가사리를 사용하는 것 역시 제주도 지역에서만 보이는 특이한 사례이다. 간경화나 간기능장애를 쇠비름으로 치료한다는 것은 한의학이나 약학 계통 쪽에서는 아직까지 연구된 바가 없고, 제주도 지역에서만 통용되고 있는 요법으로 파악된다.

두 번째 범주인 '제주도의 지리적 여건을 활용한 물리적 민간요법'은

소화 장애, 소아의 경기, 근육통, 염좌, 골절 등의 근·골격계 질환, 피부 질환, 창상과 자상 등의 외상, 궤양 등에 대하여 제주도의 자연환경에 영향을 받은 민간요법이 파악되었다. 진술 중에도 바다의 용천수의 복용으로 몸이 붓는 현상이 많았다는 내용이 있었듯이, 섬의 특성상 습사(濕邪)의 침범으로 체내 기혈순행이 쉽게 저체되는 현상이 예부터 많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응하여, 마찬가지로 섬이기 때문에 구할 수 있는 재료를 이용한 민간요법 지식이 대대로 축적되어, 제주도의 민간요법 사용 경험을 통해 제주도민들의 身土不二의 지혜를 엿볼 수 있었다. 또한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고 일상생활 속에서 발생하는 질병들을 스스로 혹은 지역사회 내에서 해결해왔던 경험의 축적 역시 제주도가 타 지역에 비해 민간요법 사용이 지속되고 있는 문화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범주인 ‘일상생활 속 제주도의 건강관리방법’에서는 특정한 질환치료 목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질병을 예방하거나 건강을 증진하려는 목적으로도 민간요법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피로 회복을 위해서는 제주시 삼양동에 위치한 검은 모래 해변에 가서 모래찜질을 하기도 하였고, 모발과 피부 건강을 위하여 동백나무 열매의 기름을 사용하기도 하였다. 동백나무는 제주도 지역에서 자생하고 있는 약용식물이며, 화상에는 제주도 지역에서만 볼 수 있는 말기름을 사용하였다.

네 번째 범주인 ‘제주도의 독특한 주술요법’에는 아플 때 뉘드리기와 영염(靈念), 눈다래끼 치료, 정신적 질환 및 동티 등이 있었다. 제주도 지역은 육지와 격리되어 있는 자연환경으로 인하여 일상생활 면면히 자연환경의 지배를 받았으며, 예측할 수 없는 기후의 변동 또한 일상생활에서 그 영향력이 지대하였다. 이러한 환경적 요인은 제주도 지역이 무속신앙이 강하게 형성되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무속신앙적 생활요인은

제주도 지역의 민간신앙에도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의 방법론적인 고찰은 다음과 같다. 제주도 주민의 민간요법 사용경험 조사를 위해 포커스그룹 면담을 기본으로 보완적인 심층인터뷰를 수행하였다. 단순히 “사용하고 있는, 혹은 알고 있는 민간요법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질문하였을 때 실제적인 사용경험에 대한 충분한 회상 없이 평면적인 답변이 나올 것을 우려하여 도입질문을 통해 우선 본인이나 가족이 이뤘던 경험에 대해 충분히 떠올리게 한 후 자연스럽게 전환질문을 통해 민간요법 사용을 기억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실제적인 민간요법 사용에 대한 응답을 유도하는 주요질문에 이르러서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경증질환, 중증질환, 평상시, 본인, 가족, 이웃별로, 또한 질병별로 주제를 바꾸어가며 풍부한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더레이터-피면담자 간, 피면담자-피면담자 간 상호작용을 통해 응답이 원활해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자료의 분석에 있어서는 채록된 인터뷰의 내용만을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을 본고에 충분히 묘사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주도 지역의 민간요법에 대한 학문적 관심이 요구된다. 제주도 지역이 가진 독특한 자연경관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 동안 제주도 지역 사람들이 만들어낸 민간요법에 대한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연구가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특히, 연구의 진행상 진술된 식물을 현장에서 눈으로 대조해가며 응답자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예비연구의 성격이 있었던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점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향후 연구에서는 식물학 및 한의학 전공자 등의 다학제적 연구 참여를 통해 진술된 질병과 식물에 대한 내용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확인하여 기록한다면 연구내용에 대한 신뢰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제주도 지역에서

사용하고 있는 민간요법은 제주도 지역사회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된 내용이지만, 과학적·실증적인 근거와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 김태용(2009), 『민간요법의 체계화에 대한 연구』, 동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한주(2000), 『제주도 식물의 지방명과 민간약 이용에 관한 조사』,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덕균(2010), 『한국본초도감』, 교학사.
- 윤용택(2010), 『제주섬 생태문화의 현대적 의의』, 『탐라문화』 제37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이승호(2010), 『한국의 기후&문화 산책』, 푸른길.
- 조식제(2012), 『특허로 만나는 우리 약초』, 교학사.
- 허준(1613), 『東醫寶鑑』, 남산당.
- 황도연(1885), 『方藥合編』, 남산당.
- 常敏毅(1992), 『抗癌本草』, 김수철 역주, 바람과 물결.
- 王筠默(2006), 『中藥研究與臨床應用』, 上海中醫藥大學.
- Kruger, R. A. (1994). Focus groups (2nded.): *A practical guide for applied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 Morgan, David L. (1996).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Sage Publications, Inc.
- 디지털제주시문화대전, <http://jeju.grandculture.net/>

Abstract

A Study on Folk Remedies in
Jeju Island Employing a Focus Group Discussion

Ahn, Duk-Kyun·Lee, Jeong-Hwa·
Baek, Seung-Min·Kim, Sul-Gi·Choi, Sun-Mi*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folk remedies used in Jeju Island, which differ from those practiced on the mainland, to determine its characteristics. We conducted a focus group discuss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a chosen sample of Jeju Island residents.

Based on the qualitative analysis of the script derived from the focus group discussion and in-depth interviews, we elicited four categories concerning the characteristics of folk remedies in Jeju Island: “prevalent pharmacological folk remedies,” “physical folk remedies incorporating the geological environment,” “daily health management,” and “unique localized psychological folk remedies.”

Jeju Islanders use unique folk remedies as well as therapies that are commonly used in other regions of Korea. Further practical scientific research on the potential efficacy and effectiveness of such remedies is required. Additionally, underlying psychological factors and customs

* Ahn, Duk-Kyun(Korea herb clinical research center)

Lee, Jeong-Hwa·Baek, Seung-Min·Choi, Sun-Mi(Acupuncture, Moxibustion and Meridian Research Group, Korea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im, Sul-Gi(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Wonkwang Univ)

pertaining to the use of folk remedies need to be investigated.

Key Words

Jeju Island, folk remedy, experience of folk remedies use, focused group discussion, in-depth interviews, geological environment

교신 : 최선미 305-811 대전시 유성구 유성대로 1672
한국한의학연구원 의료연구본부 침구경락연구그룹
(E-mail : sunmichoi@kiom.re.kr 전화: 042-860-9485)

논문투고일 2012. 06. 11.

심사완료일 2012. 07. 25.

게재확정일 2012. 08. 14.